

"홍성지회, 단합력 한껏 과시"

- 홍성지회 선진농장 견학 및 야유회 실시 -



홍성군지회와의 통합문제로 골치를 앓던 홍성지회가 선진농장 견학행사 및 야유회를 실시, 지회원들간의 단합을 한껏 과시했다.

홍성지회 회원 30여명은 지난 3월 24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환희엘크사슴농장(대표 : 유현재)을 방문, 3시간 여에 걸쳐 농장 시설들을 둘러보는 한편 유현재 사장으로부터 양육산물 판매방법에 대한 강의를 경청했다.

농장을 둘러본 홍성지회 류영현 지회장은 "TMR 사료 배합기, 사슴발굽 치료를 위한 특별 시설, 발정기시 투쟁방지를 위한 독방시설 운영 등은 특히 배울만한 점"이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매년 봄가을로 선진농장 견학 행사를 실시, 지역 농가 경영 합리

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농장 견학을 마친 회원들은 목포로 향해 유람선 탑승, 유달산 관광 등을 실시했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간단한 노래자랑을 실시하는 등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지회 단합을 돈독히 했다.

홍성지회 회원들은 홍성군지회와의 통합문제에 대해 "홍성지회는 지회 운영에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홍성군지회가 주장하는 해체모여식의 통합은 회원 모두가 반대한다"며 "폐쇄된 홍성군지회 회원은 언제든지 홍성지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회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양육**